

## VI. 기타 질환

60

도장업 근로자의 좌측 상악동 점액농류, 좌측 안면 봉와직염

성별	남	나이	48세	직종	그라인더	직업관련성	있음
----	---	----	-----	----	------	-------	----

### 1. 개요

원○○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다이캐스팅 생산직에서 근무했으며, 2009년 LPG 차량용 부품을 생산하는 곳에 입사하여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고, 2010년 4월 좌측 상악동 점액농류, 좌측 안면 봉와직염, 후각장애로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 2. 작업환경

금속을 녹여 고속, 고압으로 금형내부로 주입시켜 주조하는 공정인 다이캐스팅 생산직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하였고 2009년부터는 현장책임자로 직접 생산에 참여를 하지 않지만 문제가 있는 금형에 바리 제거를 위해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 30분정도였다.

2010년 4월15일부터 본 작업 대신에 컨테이너 행거를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채, 붓과 스프레이로 도장했고, 4월20일 바닥청소를 세척제를 뿌린후 걸레로 먼지, 녹 따위의 더러운 것을 제거했으며. 4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하루 8시간) 작업장 바닥에 페인트를 롤러로 칠하며 도장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크롬산과 크롬산염, 나프타, 에폭시 수지에 노출되었다.

### 3. 의학적 소견

2010년 4월19일 그라인더 작업 중 쇠가루가 눈에 들어가 좌측 각막 궤양으로 약물 복용 중, 두통 및 치통 계속되어 각각 치료에도 호전 없어 K대학교

병원 방문하여 후각검사에서 ‘후각장애 소견과 좌측 상악동 점액낭종, 좌측 안면 봉와직염’ 진단받고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원○○은 1995년경에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Caldwell-Luc 수술 받은 적이 있으며, 급성 장액성 중이염과 코막힘으로 이비인후과 치료를 2001년에 받았고, 2002년 3월 급성 치은염, 2004년 4월 치수염, 2010년 4월 만성 치주염으로 치료 받았으며, 그라인더 작업으로 안구 이물질은 2004년 2건, 2005년 2건, 2008년 1건, 2009년 2건, 2010년 2건 치료 받았다.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 질환은 없었으며 4년 전에 금연을 했고, 주1~2회 소주1~2병 정도의 음주력이 있다.

#### 4. 결론

원○○의 좌측 상악동 점액농류, 좌측 안면 봉와직염은

- 15년 전에 받은 Caldwell-Luc 수술로 인해서 부비동염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점액낭종이 존재하고 있으며,
- 에폭시 수지, 크롬, 나프다 성분들이 피부와 코 점막에 자극을 주어 감염에 민감한 상태가 될 수 있으며,
- 보호 마스크 없이 생산현장 바닥을 청소 하였다는 점
- 작업 및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한 금속이물질 노출 등에서 미생물 노출 기회가 높아질 수 있으며,
- 도료 및 희석제는 호흡기에 자극을 주었다고 할 수 있고 점액낭종에 2차 감염이 일어나 점액농류로 발전 하는데에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안와봉와직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